유엔총장 만난 푸틴 "협상타결 기대"

구테흐스 "인도적 상황 개선을"
"러시아, 부차사건 관련 없어"
유엔 "마리우폴 민간인 대피 합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크렘린궁에서 러시아를 방문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군사작전이 진행 중이지만 사태를 종식하기 위한 협상에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고,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민간인 대피에 대한 러시아의 협조를 요청했다.

타스·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이 진행 중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 트랙에서 합의를 이루길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말 터키 이스탄불 협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상당히 중요한 진전을 이뤘지만, 이후 우크라이나 측의 입장이 크게 바뀌었다면서 "그들이 기존 의도에서 후퇴해 크림과 세바스토폴(크림 내 특별시), 돈바스 공화국 문제 등을 논외로 빼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협상은 계속되고 있고 현재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것이 우리를 어떤 긍정적 결과로 이끌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후 우크라이나 부차 사건 등에도 봉착했지만 러시아군은 부차 사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항변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마리우폴 상황이 복잡하고 비극적이지만 그곳에서 전투는 끝났다"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마지막 저항 거점인 마리우폴의 아조프스탈(아조우스탈) 제철소는 완전히 봉쇄됐으며 그곳에서도 전투는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테흐스 총장은 "우리는 협상 참여자가 아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양국 간 대화를 지지하며, 이 접근을 진전시키려는 터키의 선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인도주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유엔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의 민간인 대피에 관여하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밝혔다.

구테흐스 총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엔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으며, 두 사람은 마리우폴과 같은 분쟁 지역에서의 인도주의적 원조와 민간인 대피에 관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뒤자리크 대변인은 전했다.

세부 사항에 대한 후속 논의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 러시아 국방부 사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푸틴 대통령과 구테흐스 총장의 회담은 크렘린궁에서 약 1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테흐스 총장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에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다. /연합뉴스

옛 소련 시절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도심에 세워진 우크라이나·러시아 친선 기념 조형물이 양국 간 전쟁이 한창인 26일(현지시간)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얀마 군부, 수치 부패혐의 징역 5년형 선고

징역형 총 11년으로 늘어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가택 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76) 국가 고문에 대해 부패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 보도했다.

통신은 재판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 군정 하 법원이 이같이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수치 고문에게 선고된 징역형은 이전 6년에 더해 총 11년으로 늘어났다.

이날 선고 공판은 수치 고문이 표 민 떼인 전 양곤 주지사로부터 60만 달러(약 7억5천만원)와 금 11.4㎏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한 것이었다.

군부는 문민정부가 승리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면서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하고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선동 그리고 뇌물수수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잇달아 기소했다.

수치 고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징역 170년 이상의 형량이 가능하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민주 진영은 군정의 무차별 기소가 대중적 인기가 높은 수치 고문의 정치적 재기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부는 수치 고문에 대해 가택연금 장소에서 징역형을 살게 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가 정확히 어느 곳에서 가택연금 중인지에 대해 군부는 함구하고 있다.

태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군부의 폭력에 의해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약 1800명이 사망했고, 1만3000여명이 체포·구금됐다. /연합뉴스

신성한 발리 화산서 나체춤 인도네시아, 캐나다인 추방

인도네시아 발리섬 주민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바뚜르(Batur) 화산에서 나체로 춤을 춘 캐나다인이 추방 결정을 받았다.

27일 트리뷴뉴스 등에 따르면 캐나다 국적의 자칭 건강전문가인 제프리 크레이건(34)은 최근 바뚜르 화산 정상에서 옷을 다 벗고 뉴질랜드 마오리족 전통춤 '하카'를 추는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렸다.

바뚜루 화산은 2000년 이후 대형 폭발은 없지만, 여전히 움직임이 있는 활화산이다. 분화구에 물이 고인 바뚜루 호수의 면적은 16㎢, 수심은 최고 88m에 달한다.

바뚜루 화산을 신성시하던 발리 주민들은 그곳에서 나체로 춤춘 크레이건의 동영상을 보고 경악해 경찰에 신고했다.

25일 체포된 크레이건은 바뚜루 화산이 '성지'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현지 경찰과 이민당국은 "발리를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은 우리의 법과 발리의 문화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며 추방을 결정했다.

2019년 말 관광비자로 발리에 입국한 그는 골다공증 대체요법을 연구한다며 지금까지 발리에 머물렀다. 당국은 크레이건을 당장 추방하길 원하지만, 그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라서 항공사들이 비행기에 태우길 꺼려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발리에서 지난해 추방된 외국인은 200명에 이른다.

상당수는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보건지침 위반자이고, 일부는 음주 난동을 피우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다. /연합뉴스

"한국처럼 소프트 파워 키우자"… 태국, 식품·축제 등 5F 육성

총리도 야당도 한국 대사 만나
"영화·패션·무에타이로 부 창출"

태국 정부가 소프트 파워(문화·예술의 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식품과 축제 등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5F' 육성에 나선다.

태국 정부 공보국은 지난 22일 웹사이트를 통해 문화부가 소프트 파워 확산을 위해 경쟁력이 있는 5F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5F는 영어 알파벳 F로 시작하는 5개 부문으로 음식(Food), 영화(Films), 패션(Fashion), 무에타이(Fighting) 그리고 축제(Festival)를 일컫는다.

태국 정부는 최근 소프트 파워를 이용해 태국을 국제사회에 더 널리 알리고 경제적 부가가치도 창출하겠다며 부쩍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태국적 요소를 담은 K팝 그룹 블랙핑크의 태국 출신 멤버 '리사'의 솔로곡 뮤직비디오가 지난해 하반기 전세계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은 것이 계기가 됐다.

이어 최근 10대 래퍼 밀리가 미국의 유명 공연 무대에서 전통 디저트인 '망고 스티키 라이스'(망고 찹쌀밥)를 먹는 퍼포먼스를 펼쳐 국내외적으로 화제가 된 것도 작용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을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보고, 벤치마킹하겠다는 분위기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지난 21일 신임 인사차 예방한 문승현 주태국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양국의 소프트 파워 진흥을 위해 협력을 더 강화하자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쁘라윳 총리는 한국이 소프트 파워를 전 세계적으로 잘 홍보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현지 매체 네이션이 정부 대변인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제1야당인 프아타이당 인사들도 전날 문 대사와 만찬을 하고 한국과의 소프트 파워 부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현지 타이랏 신문이 전했다.

일간 방콕포스트와 타이PBS 방송 등 현지 언론도 앞다퉈 정부가 한국의 소프트 파워 경쟁력을 배워야 한다는 취지의 분석 기사 등을 싣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태국 정부가 지금까지는 일부 유명 연예인에 의한 '반짝인기'만을 등에 업고 소프트 파워를 언급하는 데 그쳤다면서, 한국처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스페인 게르니카 학살 85주년 추모 행사 스페인 북부 게르니카에서 26일(현지시간) 열린 '게르니카 학살 85주년' 행사 참석자들이 검은 리본을 단 바스크 깃발을 들고 희생자를 기리는 4분간의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